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주요 다자협의체의 과학기술 의제 및 거버넌스

Major Multilateral STI forums And Their Agendas & Governance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
A study on Global STI Agenda
-Setting for the Post-2030 Era

출 처	김지현(2024). "제5장 제3절: 동남아국가연합(ASEAN)", 선인경 외.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1차년도): 제1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13-227.
-----	--

기재된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 의견이며 소속기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기재된 내용은 출처와 저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발췌 또는 인용될수 있습니다

제1절 동남아국가연합(ASEAN)

1. 개요

가. 설립 과정과 회원국 구성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이하 아세안)은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준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개국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와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가입하면서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역내 공산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는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로 유지되다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아세안 국가 간 FTA(AFTA, 1992) 체결을 바탕으로 경제 공동체로서 이행을 시작했고 2008년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을 통해 유럽연합 방식의 공동체 지향을 선언하면서 현재의 국가연합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¹⁾. 이후 2009년 발표된 『아세안 공동체 로드맵(2009-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라는 3개의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2015년부터 동 3개의 공동체와 범분야 이니셔티브(Cross-sectoral Initiative)와 함께 4개의 축(Pillars)로 나뉘며 이 구분은 아세안 거버넌스의 기준이 된다.

<표 1> 아세안 회원국과 외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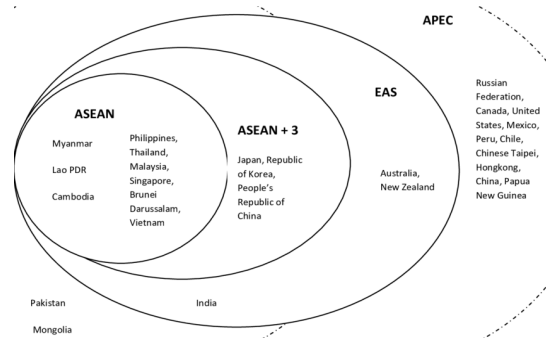
구분	해당국가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완전대화상대국(11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영국
부분대화상대국(8개국)	브라질, 모로코,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개발파트너(6개국)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페루

자료: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outward-looking-community/external-relations/>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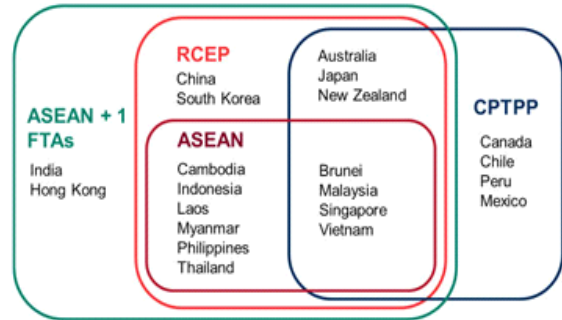
1)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를 지향하며 아세안가(歌)와 아세안기(旗) 등을 통해 공동체의 외연을 확립.

아세안은 내부적으로는 EU 보다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연합체로서 아세안은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등 지역·정치경제 공동체의 중심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5-4 참조).

[그림 1] 지역, 정치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아세안의 위치



자료: Medalia and Balboa(2011), p. 7



자료: Tan et al.(2020), p. 2.

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외부 협력국가를 협력의 수준에 완전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DP)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3대 축 모두에서 대화채널을 갖는 협력국을 의미한다. 10개 회원국에 대칭되도록 10개국의 완전대화상대국을 유지하였으나, 영국의 EU 탈퇴로 현재 11개국이 이 그룹에 속해있다. 이중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6개국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맺고 있다²⁾.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 SDP)는 3대 축 중 일부에 한해 협력하고 있으며, 개발파트너인 6개국은 ‘개발’에 한정된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구분된다. 19개 대화상대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주인도네시아 대사관(Embassy to Indonesia)과 별도로 주아세안 대표부(Mission to ASEAN)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력국가들은 아세안과 다양한 수준의 회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아세안 헌장 제42조에 따라 대화 조정자(Dialogue Coordinator)로 지정된 회원국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목소리로 아세안은 아세안 간 회의내용이나 선언문 합의 과정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한국은 2024년 완전대화상대국 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 격상에 합의하였음.

나.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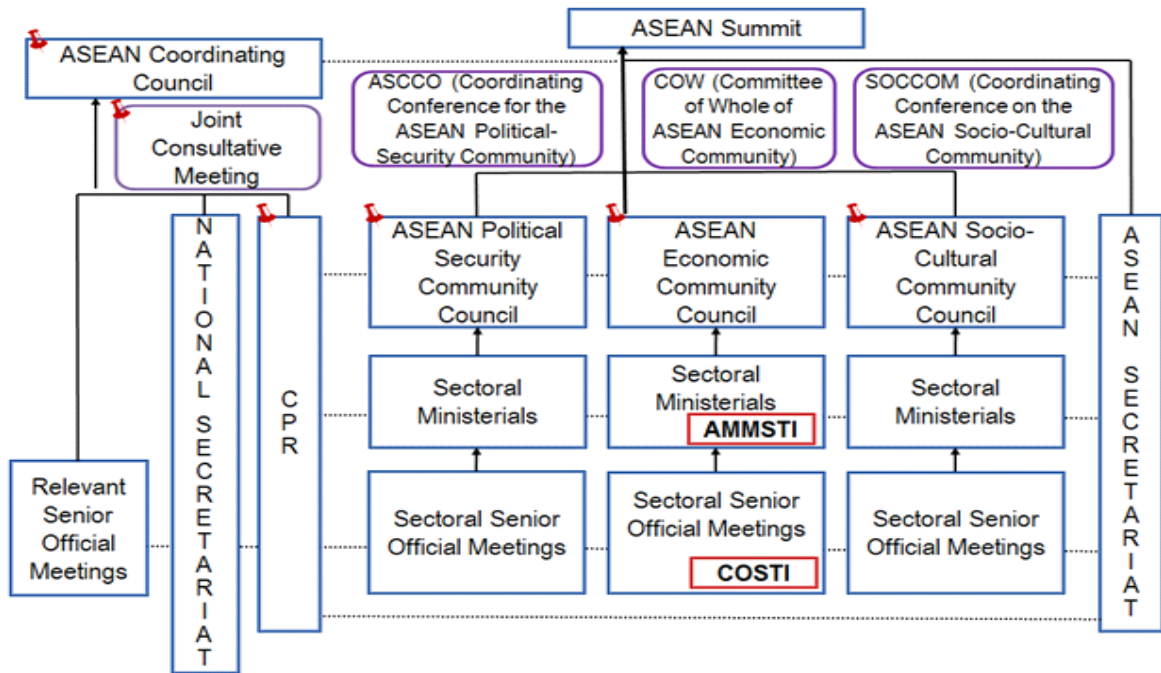
1) ASEAN way와 의사결정 과정

ASEAN 웨이(way)는 아세안 의사결정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1976년 체결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에 기초한다.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 국가정체성; 외부간섭, 전복 또는 강압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인정; 내정불간섭;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위협과 무력사용 반대; 효과적인 협력 등에 대한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함께 “논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에 기반한 사실상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회원국간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 특히 기술격차가 큰 가운데 만장일치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지연 또는 합의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난항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평등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유지하고 있다³⁾.

아세안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최고위급 회의로 하여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대 공동체에 해당하는 장관급회의와 지역안보포럼(ARF)이 있다.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국가 또는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 제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45차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의장국에서 연 1~2회 개최한다. 아세안 의장국 역시 평등원칙에 따라 일파벳순으로 순회하고 1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대화 상대국과 양자간(예: 한-아세안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한다.

3) ASEAN-X(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합의하는 경제협력 분야 의사결정방식으로 주로 FTA등의 협상시 이행속도의 차이에 따라 시차를 두는 등 협의에 활용)와 같이 예외도 있으나, 특정국가가 계속해서 X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

[그림 2]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



자료: ASEAN 내부자료

아세안 조정이사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ACC)는 아세안 3대 공동체 모두에 해당하는 주제, 아세안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신규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주로 10개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아세안 정상회의의 합의 및 결정 이행조율,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와 협력 기반 정책 일관성, 효율성 및 협력 강화,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 보고서 조정, 아세안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 검토,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른 사무차장의 임명 및 해임 승인, 이 현장에 규정된 다른 임무 또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여할 수 있는 기타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ASEAN Charter 제8조).

정상회의와 조정위원회 이외에 3개 공동체별 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정치안보이사회(APSC)는 주로 외교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안 의장국 회원국이 주관하고, 법무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 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관할한다. 아세안 경제이사회(ASC)는 부문별 장관회의로 경제장관회의, 디지털장관회의,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등을 관장한다. 아세안 사회문화이사회(ASCC)는 문화예술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등의 개최와 결과 조정을 담당한다. 이들 장관회의를 위해 각

부문 장관회의에 해당하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SOM)이 있고, 주로 위원회(committee)의 형태로 존재한다. 위원회 아래 세부위원회(sub-committee)가 있기도 하고 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수준의 Advisory Council(자문위원회)도 있는 등 하나의 조직도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별·수준별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 회의 및 조직을 정리하면 <표 5-17>과 같다

<표 2> 아세안의 주요 회의와 조직

회의 및 조직	개최 목적 또는 역할	개최시기
정상회의 (Summit)	최고의사결정기구	연 2회 개최
조정이사회 (Coordinating Council)	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 ASEAN 주요 정책결정	연 2회 개최
공동체이사회 (Community Councils)	정치안보공동체이사회 경제공동체이사회 사회문화공동체이사회	
부문별 장관급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각 공동체 이사회 산하 관련 장관급 회의	부문별 회의 개최빈도 상이
상주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공동체이사회 및 ASEAN 부문별 장관급회의업무지원 등 역할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국별사무국 (National Secretariats)	회원국 각각의 외교부에 사무국 설치	
아세안 사무국 (ASEAN Secretariat)	아세안 정책 및 사업 활동 지원, 각료회의 등 각종 회의준비 등	

자료: 아세안 홈페이지⁴⁾를 바탕으로 정리.

2)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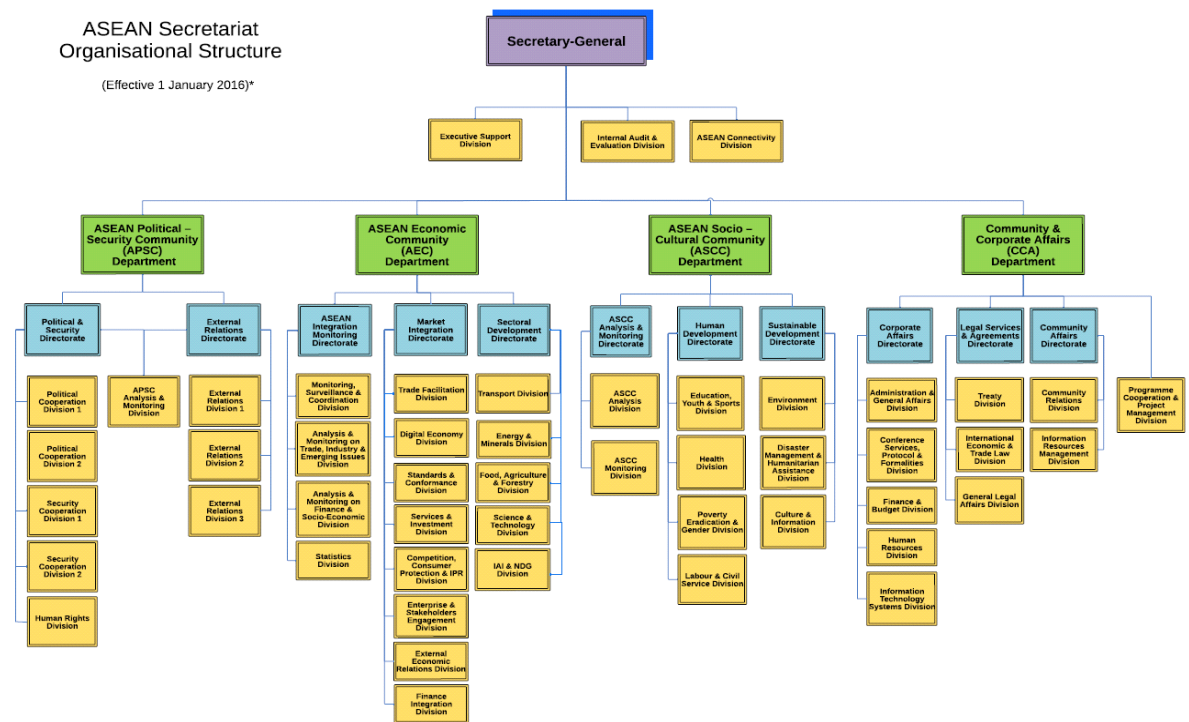
아세안 사무국은 1976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설립이 결의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다. 외교장관 회의 추천으로 정상회의에서 사무총장(임기 5년, 장관급)을 임명하는데 이 역시 평등원칙에 따라 국가의 영문 알파벳순으로 순회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아세안 장관급 회의와 이사회에 참석하며, 모든 아세안 위원회 및 기타 유사 기구 회의에 참석할 아세안 대표를 지명한다. 또한 예산과 모든 문서의 관리,

4) <https://asean.org/>.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모든 아세안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⁵⁾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무국 직원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각 이사회에 대응하는 3개 본부 (Department)와 기타 조약업무·기관운영 등을 담당하는 공동체운영국 본부를 포함해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아래에는 2-3개의 국(Directorate)이 있고 다양한 분야별 과(Division)로 나뉘어진다(그림 5-6 참조).

[그림 3] 아세안 사무국의 조직구조



자료: The ASEAN Secretariat 홈페이지⁶⁾

3) 과학기술혁신 관련 의사결정⁷⁾

아세안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이슈에 대한 협의는 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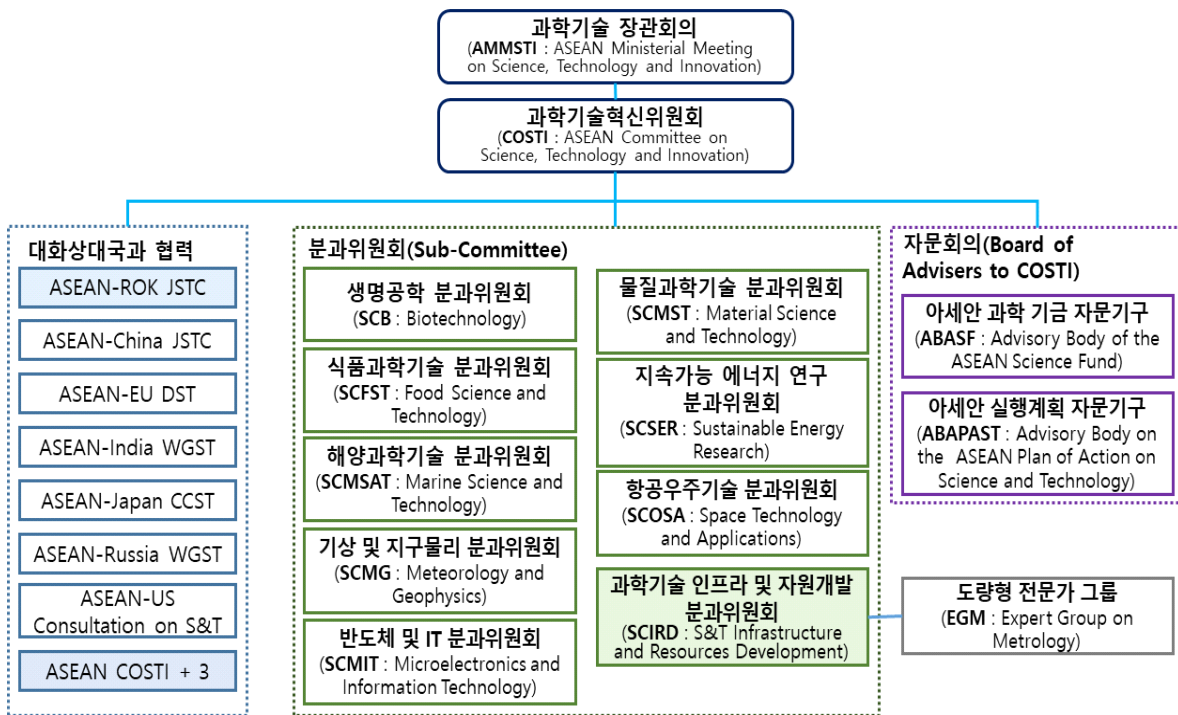
5) <https://asean.org/the-asean-secretariat-basic-mandate-functions-and-composition/>(검색일: 2024.10.3.).

6) <https://asean.org/the-asean-secretariat-basic-mandate-functions-and-composition/organizational-structure-of-the-asean-secretariat-2/>.

7) 이 부분은 ASTNET 홈페이지 내용 요약 정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astnet.asean.org/>를 참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대화파트너와 공식 협의체로 나뉘어진다.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과학기술장관회의(AMMSTI)가 있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혁신위원회(Committee on STI: COSTI)회의 기간 마지막 날 AMMSTI를 개최한다. COSTI는 6월(공식)과 10월(비공식) 2차례 각 3-4일간 개최되고 알파벳순으로 순회하는 1년 임기의 COSTI 의장국에서 개최된다. COSTI 산하에는 생명공학, 식품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 기상 및 지구물리, 반도체 및 IT, 물질과학기술, 지속가능에너지, 항공우주기술, 과학기술인프라 및 자원개발 등 총 9개 분과위원회가 있어 관련 안전 및 의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아세안의 과학기술혁신분야 거버넌스



자료: 아세안 내부자료

COSTI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한국(공동의)을 비롯해 중국, EU(대화), 인도, 러시아(작업반), 일본(협력위원회), 미국(협의체)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주요 협력의제를 다루는 COSTI와 대화상대국 간 정례적인 회의가 개최된다. 아세안 사무국은 COSTI의 안전 뿐 만 아니라 대화상대국과의 회의에 대한 의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COSTI 산하에는 물질과학기술, 지속가능에너지, 항공우주기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자원개발 등 총 9개 분과위원회가 있어 관련 안전 및 의제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하게 되는데, 협력사업의 제안서, 보고서 등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승인(endorsement)을 거쳐 COSTI에 보고되고 다시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검토와 승인 과정에서 10개국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반영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세안 사무국은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디지털 분야는 과거 정보통신장관회의(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 Meeting: TELMIN)이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기능했으며, 2020년부터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거버넌스는 아세안의 일반적인 장관급→고위급→실무급→분야 또는 분과별 실무급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5-17 참고).

<표 3> 아세안의 디지털 부문 거버넌스

주요기구	대표	설립	회의운영
아세안 디지털 장관 회의(ADGMIN)	ICT 또는 디지털 기술 담당 장관	2001.7 TELMIN(ASEAN 통신 및 정보 기술 장관 회의)→2019.10 ADGMIN으로 변경.	연 1회 장관급 회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미국, ITU와 ASEAN+1 협의체 회의를 연속 개최
ASEAN 디지털 고위관리 회의(ADGSOM)	사무총장 -ADGMIN의 고위 관리 기관	TELMIN의 조정 기관으로서 TELSOM →ADGSOM	ASEAN 통신규제위원회(ATRC)와 2차례의 공동회의 및 중국, 일본, 한국, 인도, EU, 미국, ITU와 ASEAN+1 협의회의와 연속으로 1회의 연차회의 개최
ADGSOM 실무그룹(ADGSOM WG)	이사 - ADGSOM의 실무 그룹	ADGSOM의 협력 활동 업무 계획 및 활동 이행 논의	ATRC 실무그룹과 제1회 연례 공동 실무그룹(JWG) 회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EU, 미국 및 ITU와 ASEAN+1 협의 회의와 연속 개최
아세안 네트워크 보안 행동 위원회(ANSAC)	사이버 보안 담당 이사 - ADGSOM 실무 그룹	AIM2015에 따라 2012년에 설립. 디지털 부문에서 ASEAN 사이버 보안 협력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1년에 한 번 이상 필요시 개최

주요기구	대표	설립	회의운영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그룹(WG-DDG)	이사 - ADGSOM의 임시 실무 그룹	2018년 설립.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ASEAN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프레임워크의 핵심 이니셔티브 구현	비정기
ASEAN 통신 규제 위원회(ATRC)	국가전기통신규제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국장 또는 전기통신 규제 담당 사무총장 - ADGMIN의 고위 공무원 단체	1995년 ASEAN 통신 규제 위원회로 설립→2011. 7. 현재 이름으로 변경 ADGMIN의 자문역	ADGSOM과 연 2회 공동회의, 중국, 일본과의 ASEAN+1 협의회의를 포함한 1회 연례회의
ATRC 실무그룹(ATRC WG)	이사 - ATRC 산하 실무 그룹	ATRC의 협력 활동 업무 계획 및 활동 이행을 논의	중국, 일본, 한국, 인도, EU, 미국 및 ITU와의 ASEAN+1 협의 회의를 포함하는 ADGSOM WG와의 1차 연례 공동 실무 그룹(JWG) 회의
스펙트럼 관리에 관한 하위 작업 그룹(SSM)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규제 담당 이사 - ATRC 산하 실무 그룹	2011년 ITU 세계 전파 회의에서 스펙트럼 관리 문제와 ASEAN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	1차 연례회의, ADGSOM-ATRC JWG 회의와 연속 개최

자료: 아세안 내부자료 바탕으로 정리.

2. 주요 의제

지역 내 느슨한 국가연합체로 아세안의 주요 논의 사항은 역내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아세안 전체의 경쟁력 강화이며, 역내 조정과 합의를 통해 격차의 해소, 인력교류·인프라구축 등을 통한 연결성 강화이다. 따라서 아세안에서 다루어지는 과학기술혁신 분야 의제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정리나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공통의 역내 관심사와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 협력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어 다른 다자협의체와 차별화된다.

2010년 이후 아세안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 주요 어젠다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쳐 왔으며 주로 역내 경제발전, 인력과 생태계,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더해 지속가능발전, COVID-19 대응 과정에서의 바이오기술 및 회복과정 상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 디지털 전환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문서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일부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 논의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공동언론성명으로 발표되는 장관급회의 결과 역시 매우 간략하고 정제된 언어로 쓰여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제의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세안에서의 과학기술혁신 논의는 주요 이니셔티브와 행동전략 등을 통해 의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2010년: 연구개발에서 공동체 문제해결

아세안의 크라비 이니셔티브(Krabi Initiative)는 역내 지속 가능한 STI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0년 AMMSTI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을 이루고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크라비 이니셔티브의 핵심내용은 <표 5-18>과 같다.

<표 4> 크라비 이니셔티브의 내용

구분	내 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2015, 과학기술의 역할: 경쟁력과 인간발전 사이의 균형(people-oriented STI), 아세안 과학공동체 부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아세안 혁신, 디지털경제·뉴미디어·소셜 네트워크, 녹색경제,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물관리, 생물다양성·보건, 삶의 질을 위한 과학과 혁신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 문화 확산, 취약계층(BOP) 중심, 청년중심의 혁신,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STI, 민관협력 플랫폼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 어젠다 이행을 위한 아세안 내 조직개편 • STI 내 파트너십 활성화와 타이해관계자 협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개발 • ASPST 2012-2015 이행과 2015 이후 전략 개발 • STI 주제별 M&E 메커니즘 도입

자료: Krabi Initiative 2010⁸⁾를 번역하여 정리.

8)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archive/documents/Krabi-101217.pdf>

태국이 주도한 크라비 이니셔티브는 지역 통합을 가장 상위의 목표로 하는 아세안의 가치 아래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통한 아세안 지역의 통합력을 높이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양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여 회원국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내 공동의 문제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존을 강조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환경 보호 기술,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공동체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아세안 회원국 내 지속적인 화두인데,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아세안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MSME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과학기술혁신을 전면에 두고 역내 경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아세안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COSTI의 다소 학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역내 영향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접근과 차별성을 보인다(송치웅 외 2020).

나. 2015년 이후: 혁신과 디지털, 지속가능성

2015년을 전후하여 아세안의 모든 문서와 조직체계 내 혁신(innovation) 요소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아세안 과학기술혁신행동계획(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PASTI) 2016-2025』은 과학기술 분야 아세안의 최고 전략문서인 지난 5년 단위 APAST들과는 달리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STI가 활성화된 통합 경제공동체 아세안’을 표방한다. 2015년 라오스 AMMSTI에서 승인, 2016년 『APASTI 이행계획(APASTI Implementation Plan, AIP)』가 채택되면서 10년간의 전략과 이행방안, 특히 대화상대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과 분야들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APASTI 2016-2025는 지식과 기술 개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역내 격차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을 강

조함으로서 이후 아세안 혁신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디지털 마스터플랜 등 기타 전략에서도 과학·디지털 기술발전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역내 통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APASTI 2026-2020의 주요 목표는 혁신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2025 비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APASTI는 4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15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5-19).

〈표 5〉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 2016-2025

전략분야	실행과제
전략적 협력강화	1.1 학계, 민간 부문 및 관련 파트너와 인적자원 개발 및 연구 협력 강화 1.2 ASEAN 과학기술 네트워크(ASTNET) 활성화 1.3 지적 재산권(IPR) 보호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 수립 1.4 SDGs와 같은 주요 분야에서 지역 STI 이니셔티브 강화
2. 과학자 및 연구자 이동성 강화	2.1 과학자, 연구자, 학생을 위한 교환 정책 수립 2.2 학생, 연구자, STI 인력 대상 장학금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2.3 교육 및 기술 능력 인증 표준화 강화 2.4 여성, 청년, 소외 계층의 STI 참여 확대
3. 혁신시스템 및 파트너십	3.1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3.2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STI 이니셔티브 추진
4. 인식제고 및 STI 문화 확산	4.1 ASEAN S&T 행사 참여 장려 4.2 ASEAN 과학기술 저널 및 기타 출판물의 콘텐츠 강화 4.3 ASTNET을 통해 ASEAN STI 이니셔티브 홍보 4.4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STI 문화 확산 계획 개발

자료: ASEAN(2017)⁹⁾를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APASTI 2016-2025는 아세안 내 STI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COSTI 산하 9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통해 주제 별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아세안혁신선언(ASEAN Declaration on Innovation)』은 회원국이 역내 포용적 성장과 공동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STI 발전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언은 총 8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을 강조했는데, 혁신스타트업과 혁신적 기술 활성화로 자본과 인재 이동촉진; 고용 창출을 위한 혁신

9) 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APASTI) 2016-2025.

기업 지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ICT 역량강화를 통한 노동인력의 혁신역량 습득;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MSMEs에 대한 정책지원; 연구와 기술이전을 위한 아세안 내 정책환경 조성; 식량, 보건, 에너지, 물, 환경, 재난 문제의 해결과 SDGs 달성을 위한 STI 활용; 역내 연구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시스템 활용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⁰⁾. 이 선언은 아세안에서 혁신의 의미와 지향점을 담아 아세안 내 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아세안 회원국 및 다양한 부문들이 혁신 친화적인 법률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초의 문서로 이후 『아세안 혁신 로드맵(ASEAN Innovation Roadmap 2019-2025)』 수립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아세안 디지털 부문은 이전에 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으로 ICT 인프라, 통신 규제, ICT 개발 정책,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ICT 기술 및 기타 아세안 ICT 부처의 관할 영역의 협력을 담당했다. 사회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이 부문의 명칭을 ICT에서 디지털로 공식 변경했다.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ASEAN Digital Masterplan 2025)』은 아세안(ASEAN)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며,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적 추진 분야는 지난 ICT 마스터플랜들과 비교해, 훨씬 복합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20). 특히 역내 ICT 인프라 접근성 강화, ICT 격차해소,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ICT 등 역내 성장을 위한 ICT 인프라, 통신 규제, IT 기술개발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면 디지털 마스터 플랜의 경우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정책 및 규제,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이버 보안,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규제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역내 균형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의 단계로 역내 데이터 및 네트워크 연결성을 고려하며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의 잠재력과 함께 사회, 경제, 윤리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해 오고 있다.

10) ASEAN(2017), ASEAN Declaration on Innovation.

〈표 6〉 아세안 ICT 및 디지털 마스터플랜의 추진분야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2010-2015)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2016-2020)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2021-2025)
전략적 추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변혁 : ICT 부문의 무역, 투자 및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삶의 질: 저렴하고 공평한 ICT를 통해 삶의 질 향상 혁신 :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녹색 ICT 부문 육성 인프라 개발 : 모든 ASEAN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ICT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 개발 : ICT 분야에서 유능하고 숙련된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 개별 국가 및 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통합 및 혁신: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 질서 ICT 기반 인간중심 통합 및 권한강화: ICT 활용, 광대역 보급률과 경제성 향상 혁신: ICT 및 차세대 응용 분야 선도를 위해 기업가 정신 촉진 ICT 인프라 개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프라 확보 인적 자원 개발: 디지털 지식을 갖춘 아세안 시민,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인재 유치 단일 시장 ICT: 사업 수행 비용을 낮추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을 위한 ICT 확산 뉴미디어 및 콘텐츠: 아세안 콘텐츠 확산 정보 보안: 디지털 생태계 구축, 안전한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연결성과 인프라: 저렴하고 질 좋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차세대 인프라, 보편성, 공평한 접근 디지털전환: 스마트 디지털 환경, 첨단기술, 디지털혁신, 디지털정부와 사회, 디지털 리터러시, reskill-upskill-new skill, MSMEs 회복력(Resilience), 신뢰, 보안: 네트워크 회복력, 사이버보안, CIIP, 신규위험 요소 디지털 정책, 규제 및 표준: 디지털혁신샌드박스, 국경간 데이터, 그린디지털이니셔티브 협업과 협력(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범분야 협력, 기술개발자-DP-국제 기구-시민사회 등 다중이해 관계자 협력

자료: ASEAN(2011); ASEAN(2015); ASEAN(2021)를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최근에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디지털 부문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칙, 데이터 분류 접근 방식,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다루는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¹⁾

11)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https://asean.org/our-communities/economic-community/asean-digital-sector/priority-areas-of-cooperation/>(검색일: 2024.10.3.).

3. 소결

아세안은 공식적으로 EU와 같은 국가공동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고 문화적인 동질성, 역사적 배경, 경제/사회적 격차 측면에서 EU 방식의 통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과 거버넌스를 체계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모든 아태지역 협의체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과 역내 격차, 정치제도의 상이함 등으로 비교적 쟁점이 없는 역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디지털 규제와 데이터 질서 등에 대해서는 개별국가 단위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공동체로서 역내의 자유로운 데이터와 자본, 인력, 물류의 흐름을 강조하는 연계성 강화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 분야는 향후에도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의 발굴과 이행과정에서의 정책적 조율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업안건 중심의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 활동을 주요 의제에 대한 역내 질서 논의의 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위 역시 현재 과장급 위원장 체제를 국장급회의로 격상하고 격년 단위를 연례 회의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내 다양한 과학기술혁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거나 재편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동 프레임워크의 확장을 통해 국제사회 의제 논의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